

# 서울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학술심포지엄

### 수목예술 동시대성·역할 등 조명 “가치·정신 등 본질적 문제 집중” 혁신적·미래지향적 접근 필요성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내학술심포지엄이 13일 서울 아크코리아랩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비전’이라는 주제로 수목 예술의 동시대성과 현대미술에서 수목의 역할을 조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배원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수목화의 용어 사용 문제와 코스모폴리타니즘-수목별미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발표를 해 관심을 모았다.

배원정 학예연구사는 “수목의 다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전시를 통해 내용적·형식적 의미에서 수목화의 개념과 한국화의 변천사를 조명했다”며 “현재 한국화로 일컫는 수목채색화가 현대 미술에서 주변이 아닌 주류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한국성을 담보해야만 한다는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목의 가치와 정신은 무엇인지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수목화의 다양한 도전과



지난 13일 서울 아크코리아랩에서 열린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학술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실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그 역할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상기시켰다.

이예승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교수는 ‘수목의 정신과 기술 기반시대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국화 특히 수목화 정신과 창작 방식이 디지털 기술적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융합될 수 있는지를 창작 경험과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동양철학과 기술 기반 예술을 결합한 한국화가 동시대 예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화는 지난 수십 년간 현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본질적인 전환점을 맞지 못하고 있어 한국화의 지속적 현대화 논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윤율리 일민미술관 책임큐레이터는 “한국화 전시의 동시대적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국화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로서의 고민과 경험을 소개했다.

윤 책임큐레이터는 “한국화 전시에서 용어와 개념의 뜻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노력

은 불가결하며 특히 전시를 만들면서 한국화라는 기반의 저변 부족, 좋은 작가와 연구자가 제도에 유입돼 미학적 담론의 창출이 필요함과 역사적·이념적 마찰이 한국화 전시 인근에서 야기될 수 있음을 여실히 느꼈다”며 “향후 보편타당한 윤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읽기 위한 미적 상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정일주 퍼블릭아트 편집장이 좌장을 맡아 윤재갑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 등과 함께 수목의 현대적 의미와 가능성을 논의했다.

명창환 (재)전남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수목의 세계화를 열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전남 수목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 진도 등 전남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수목과 현대수목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며, 국내외 다양한 작가가 참여해 세계 관람객에게 수목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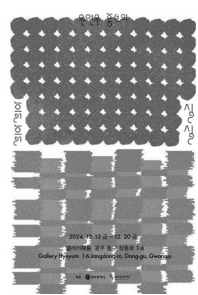
## 윤연우·홍보의 2인전 ‘흠흠실실’

20일까지 갤러리혜움

윤연우, 홍보의 작가의 2인전 ‘흠흠실실(사진)’이 오는 20일까지 갤러리혜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2024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에 선정된 두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광주에서 10년 동안 직조 회화를 이어온 윤 작가가 기획하고, 도예 작가 홍보의가 참여했다.

홍 작가의 흠으로 익숙한 기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그릇 등을 감상할 수 있고, 윤 작가의 실을 한 칸씩 쌓아 올려 포근한 물성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테이프스트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람객에게 예술과 공예가 나누는 지점을 생각하게 하며 분류됐을 때 두 분야가 어떻게 만나고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전시는 이미지가 넘쳐나는 곳에서 시간을 쌓고, 손을 통로 삼아 만들어진 공예와 공예적 작품을 통해 재료의 물성과 성질의 감수성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전시 현장에서는 두 작가와 이하영 독립큐레이터의 진행으로 인터뷰한 이시대 공예적인 작업에 대한 셋의 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박찬기자

## 나주 작은미술관에 조성된 지역 예술의 향연

### ‘크리스마스 ON: Play&Art展’ 27일까지 작은미술관·정미소 지역 공예 작가들 작품 선배

나주 작은미술관과 정미소 복합공간에서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지역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나주 작은미술관은 ‘크리스마스 ON: Play & Art展’을 오는 2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한지공예, 금속공예, 천연염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예가

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각 작품에는 작가들의 깊은 예술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표현된 예술을 통해 지역 공예의 아름다움과 작가들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다.

참여 작가는 문정운(금속공예), 양순(섬유, 천연염색), 유영대(도자공예), 윤애실(한지공예), 최진경(목공예), 최미성(천연염색) 등이다.

나주정미소의 복합공간인 ‘참새 방앗간’에서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이 트리를 직접 꾸미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돼 연말의 설렘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희망 나무’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이 자신만의 소망을 적어 트리에 장식하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나무에 걸린 소망들은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결을 상징하며, 서로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 작은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로 나주정미소와 나주 작은미술관의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체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고, 원도심 문화 공간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 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읍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 암 박 산 지 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럴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